

## [한나라 대선후보 이명박 확정]

이명박 어떻게 이겼나

# “도덕성보다 능력” 여론서 이겼다

경제 이슈 선점…초반 우세 지켜 조직 열세 돌파  
호남·서울서 우위, 30·40대 지지 확보도 성공

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박근혜 전 대표의 막판 주격을 뿐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민심을 확보했기 때문이었다.

이 후보는 당원과 대의원,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아우르는 현장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400여표 차로 졌으나 여론조사에서 2천900여표 앞서면서 신승했다. 한마디로 조직의 열세를 민심의 우위로 돌파한 셈이다.

이 후보가 이처럼 민심에서 크게 앞설 수 있었던 것은 경선 레이스 초반부터 넘버원 공약인 ‘한반도 대운하’와 ‘대한민국 747 비전’(7% 성장, 4만 달러 소득, 7대 경제강국) 등을 제시하며 경제 이슈를 선점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.

그러나 경제살리기가 일종의 시대정신처럼 최우선 국가과제로 부상하면서 ‘경제하면 이명박’이라는 이미지가 유권자들에게 서서히 먹혀 들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다.

이 후보에 국민의 ‘도덕적 자대’가 다른 주자들에 비해 다른 것처럼 보였던 것도 결국은 경제 살리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.

실제 경선 직전 한 방송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60% 가량이 ‘차명재산’의혹이 있고 있는 ‘도곡동땅’이 이 후보 소유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후보에게 ‘변함없는’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.

도덕적 흥미가 있다라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.

절대 우위의 ‘민심’은 ‘당심’을 공략하는 데도 효과를 발휘했다. 박 전 대표가 장악해온 두터운 조직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을 하나 둘씩 우군으로 만들어 나갔다.

물론 이날 개표결과 이 후보는 조직표에서 박 전 대표에서 패배한 것으로 나왔지만 비주류, 아웃사

이여였던 이 후보가 조직표를 절반이나마 가져온 것은 대단한 성과라는 것이 평가가 많다.

무려 6개월간 계속된 박 전 대표측과 범여권의 파상적 네거티브 공격을 그런대로 잘 버텨낸 것도 승인의 하나로 평가된다. 검증공방 와중에 한때 50%를 웃돌았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한때 ‘이대로 침몰하는 것 아니냐’는 위기감마저 감돌았으나 끝내 심리적 마지노선인 35%선을 지켜냈다.

이와 함께 ‘샐러리맨의 신화’를 이뤄낸 입지전적 성공스토리, 그리고 서울시장 재직 당시 청계천 복원 및 교통체계 개편 등에서 보여준 추진력과 실적도 표심을 빨아들이는데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.

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30~40대 연령층에서 40% 안팎의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의 ‘검증된’ 능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.

**■ 지역별 득표현황**  
지역 | 유권자수 | 득표수 | 득표율(%)  
서울 | 16,190 | 11,113 | 68.13  
부산 | 5,273 | 5,789 | 100.00  
대구 | 2,305 | 5,072 | 22.00  
인천 | 3,089 | 3,135 | 100.00  
광주 | 1,338 | 853 | 63.13  
대전 | 1,272 | 2,404 | 183.00  
울산 | 1,517 | 1,637 | 100.00  
경기 | 12,779 | 12,543 | 94.00  
강원 | 1,866 | 2,436 | 130.00  
충북 | 1,823 | 2,343 | 128.00  
충남 | 2,271 | 3,179 | 140.00  
전북 | 2,141 | 1,581 | 73.00  
전남 | 2,692 | 1,852 | 68.00  
경북 | 4,455 | 5,111 | 114.00  
경남 | 4,498 | 4,748 | 105.00  
제주 | 707 | 852 | 120.00  
계 | 64,216 | 64,648 | 100.00

■한나라당 17대 대통령후보 경선 결과

후보자	여론조사		선거인단		종합결과	
	득표수	득표율(%)	득표수	득표율(%)	득표수	득표율(%)
1 이명박	16,868	51.55	64,216	49.06	81,084	49.56
2 원희룡	1,079	3.30	1,319	1.01	2,398	1.47
3 박근혜	13,984	42.73	64,648	49.39	78,632	48.06
4 흥준표	793	2.42	710	0.54	1,503	0.92



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박근혜 전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. /연합뉴스

## ■李후보의 남은 과제는

## 갈라진 ‘당심’ 모으고 범여 ‘검증’ 넘어야

한나라당이 20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선 후보로 선출함으로써 ‘경선 성공’이란 큰 산 하나는 넘었지만 12월 19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많은 산들이 남아 있다.

이번 경선에서 신승을 거둔 이 후보는 우선 패자인 박 전 대표측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아 갈라진 당심을 한곳으로 모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.

이 후보가 수락 연설을 통해 “저를 지지했

든, 하지 않았든 우리는 모두 하나”라며 탕평책을 시사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. 이 후보가 소위 한나라당의 주류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당이나 패자측과의 원만한 관계 설정도 넘어야 할 장애물로 꼽힌다. 일각에서는 비주류에 안방을 내 준 주류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.

당과 보조를 맞춰야 하겠지만 후보 중심의

외연 확대 작업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.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반 한나라당 전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

필요가 있기 때문이다.

이 후보로서는 경선 과정에서 노출된 ‘검증’ 재료에 대해 좀 더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. 벌써 범여권은 “진짜 검증은 이제부터”라며 잣ää 버르고 있는 모습이다. 지난 대선 과정을 보면 대선 본선 정국에서의 검증 대결은 당내 경선 때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진행될 수 있다.

/연합뉴스

## 운하 빼곤 새로운 내용 없어 진정성·비전 담긴 보완 필요

## ■李후보 호남권 공약은

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명박 후보는 그동안 광주일보와의 인터뷰 등 수차례에 걸쳐 호남 발전의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.

그러나 이 후보의 호남권 공약은 호남 운하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주후 대선 과정에서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이 후보는 지난 3일 광주일보와의 호남권 공약 점검 인터뷰에서 “대통령이 된다면 호남에 가장 많은 정책적 투자를 실행하도록 하겠다”는 의욕을 나타냈다.

새로운 호남 발전 프로젝트로 이 후보는 “영산강을 토대로 하는 호남운하 건설을 통해 편리한 물류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영산강의 기적을 창출하겠다”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.

또한, 이 후보는 “광주에 호남 운하의 핵심이 되는 내륙 항구를 개설하는 한편 문화와 자동차 산업 관련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”는 계획도 제시했다.

기존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, 이 후보는 “기본적인 재원 계획이 미흡,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”고 진단한 뒤 “내가 집권한다면 광주·전남 지역 대형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재점검,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과거 경부 축 중심의 경제 개발 등으로 인해 호남이 경제적 낙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한 이 후보는 “광주·전남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구축 및 산업기반 시설 배치 등에 있어 정책적인 배려와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한미 FTA 협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전남 농가들에 대해서 이 후보는 “우선 피해 농가에 대해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촌이 FTA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출지향형 농기업을 육성하겠다”는 입장장을 밝혔다.

광주와 전남의 상생 발전 전략과 관련, 이 후보는 “광주·전남을 있는 광역경제권을 형성, 자동차, 전자, 조선 산업과 문화, 관광산업 등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는 방침과 함께 “광주·전남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겠다”는 입장을 나타냈다.

또한, 이 후보는 “광주에 호남 운하의 핵심이 되는 내륙 항구를 개설하는 한편 문화와 자동차 산업 관련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”는 계획도 제시했다.

지역 정계 관계자는 “이 전 시장이 의욕을 나타내고 있으나 제외하고 있는 호남 발전 공약은 호남 운하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다”며 “이 전 시장이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비전이 담긴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”이라고 지적했다. /임동욱기자 tuim@

■ 박희태·이상득·이재오·정두언  
李후보 만들기 공신

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핵심 참모는 누굴까. 캠프 안팎에서는 박희태

공동선대위원장, 이상득 국회 부의장, 이재오 최고위원, 정두언 의원 등 이른바 ‘선거캠프 4인방’이 ‘이명박 후보 만들기’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데 이견을 달지 않는 듯하다.

이 최고위원은 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전부터 후보 확정 순간까지 이 전 시장의 ‘오른팔’이자 사실상의 캠프 좌장 역할을 수행하며 오직 이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밤낮도 잊은 채 ‘울인’했다.

경선 사흘 전부터는 캠프에 갖다 놓은 야전침대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“박 전 대표 측의 막판 응해를 하늘이 두 쪽 나도록 막아야 한다”고 끝내, 박 전 대표 측의 강공을 앞장서 막아냈다. 충성도, 기여도, 성실

/연합뉴스



##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

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

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모든 난청을 막습니다.

세기스타·세기보청기

www.dogilbochong.co.kr

1588-8499 080-222-0100

